

 보건복지부		<h1>보 도 자 료</h1> <p style="color: red;">6월 25일(목) 조간 (6.24. 12:00 이후 보도)</p>	
		배 포 일	2020. 6. 24. / (총 4매)
과 장	조 신 행	전 화	044-202-3190
담 당 자	배태현 / 신예진		044-202-3191 / 3193

## 학대 위기아동 발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!

- 학대 위기아동 발굴 및 재학대 발견을 위한 일제 점검 실시 -
  - ▲고위험 아동 대상 조기발굴을 위한 집중점검 실시,
  - ▲경찰과 합동점검팀 구성을 통한 재학대 발견 특별 수사기간 운영-

□ 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는 아동학대 위기아동 조기발굴을 위해 고위험 아동 대상 집중점검을 실시하고, 재학대 발생 근절을 위해 경찰 등과 함께 기존 아동학대 신고사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.

○ 이는 지난 6월 12일(금) 사회부총리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“아동학대 방지대책” 중 즉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대책들을 빠르게 수행한다는 방침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.

□ 후속 조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(위기아동 집중발굴) 최우선 과제로 오는 7월 1일(수)부터 아동학대 위기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보호하기 위한 집중 점검을 시작한다.

○ 그 간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, 비대면 교육 실시 등 아동을 직접 만날 기회가 줄어들면서 발견되지 못한 아동학대 위기아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.

- 이에 따라 아동학대 발생과 관련이 높은 △예방접종 미접종 △건강검진 미수검 △학교 장기결석 △가정폭력 여부에 해당하는 아동의 명단을 확인하고, 이들 고위험아동 약2만 5000명을 대상으로 방문 점검을 실시\*할 예정이다.

\* (가정방문 시 코로나19 안전수칙 철저) △마스크 반드시 착용 △두 팔 간격 (2m) 거리 두기 △30초 이상 손 씻기 △기침은 옷소매에

- 전국 읍면동 공무원이 해당 가정을 방문하여 학대 발생 여부 및 양육환경 등을 점검하고 학대발견 즉시 이를 경찰에 신고하며, 복지서비스 지원\*에 대한 수요도 확인하여 연계한다.

\* 드림스타트 연계, 복지급여 신청, 생필품 지원 등

- 아동의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여, 사회안전망 밖에 놓인 학대 위기 아동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본다는 방침이다.

- 아울러 점검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(모니터링) 체계를 구축·운영할 예정이며, 해당 점검 결과를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대아동 사전 발굴시스템(「e아동행복지원시스템」)에 연계하여 학대 피해 아동 발굴 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.

② (재학대 특별점검) 재학대 발생을 전면 근절하기 위해 경찰·아동 보호전문기관·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아동학대 점검팀을 구성하여 “재학대 발견 특별 수사기간”을 6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.

- 아동학대 감시체계 안에 포함되어 관리되던 기존 아동학대 사례 중에 재학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, 경찰·지자체 등 공적 대응체계가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.

-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례 중 재학대 발생 우려가 높고, 아동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사례부터 강도 높은 특별점검을 통해 아동학대 재발생 여부를 확인한다.

- 이번 특별수사 기간은 6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약 8,500명 사례를 대상으로 총 3차에 걸쳐 시행\*되며, 1차는 경찰이 관리하는 위험사례 위주로 시행 중이며, 이어 기준\*\*에 따라 2차·3차 대상을 선별·시행한다.

\* ①차(6~7월) 약 2,500건, ②차(8~9월) 약 3,000건, ③차(10~11월) 약 3,000건

\*\* △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·형사처벌 사례 △의료진 신고에 의한 신체학대 사례 △재학대 신고 2회 이상·가정폭력 발생 등 고위험 가정

- 재학대 상황 발견되는 경우 학대행위자에 대해 무관용원칙 적용을 적용하여 수사의뢰 등 엄중조치하고, 강력한 처벌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.

- 학대 피해아동에 대해서는 원가정복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분리보호 조치를 시행하여 해당 아동이 두 번 다시 학대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할 예정이다.

- 아울러 점검 시 경찰-아동보호전문기관 동행·협력을 통해 강력하고 신속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으로, 기관 간 협업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는지 여부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.

□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“학대 위기아동을 파악하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이번 점검을 통해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 위기 아동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.”라고 말했다.

○ 또한, “국민 여러분께서도 주변에 학대받는 아동이 없는지 관심 가져 주시고 이를 발견할 경우 경찰에 적극 신고해달라.”라고 당부하였다.

<붙임> 1. 학대 위기아동 발굴 및 재학대 발견 일제점검 추진개요

## 붙임 1

# 학대 위기아동 발굴 및 재학대 발견 일제점검 추진개요

### ① 학대 위기아동 집중발굴 추진

- (운영목적) 아동학대 위기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보호하기 위해 고위험아동 대상 집중 방문점검 실시
- (대상·기간) 아동학대 발생과 관련이 높은 변수\*를 보유한 고위험 아동 약2만5천명(7.1~9.31일, 3달)
  - \* △예방접종 미접종 △건강검진 미수검 △학교 장기결석 △가정폭력
- (운영방법) 전국 읍면동 공무원 가정방문을 통해 △학대발생 및 양육환경 점검 △학대상황 발견 즉시 이를 경찰에 신고하며, 복지서비스 지원\*에 대한 수요도 확인하여 연계
  - \* 드림스타트 연계, 복지급여 신청, 생필품 지원 등

### ② 재학대 발견 특별 수사기간 운영

- (운영목적) 아동학대 감시체계 안에 포함되어 관리되던 기존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재학대 근절
- (대상선정) 최근 3년간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례 중 재학대 발생 우려가 높고, 아동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사례\*(1~3차 운영\*\*)
  - \* △행위자 보호처분·형사처벌 사례 △의료진신고 신체학대 △고위험 가정 등
  - \*\* ①차(6~7월, 시행중) 약2,500건, ②차(8~9월) 약3,000건, ③차(10~11월) 약3,000건
- (운영방법) 경찰·아보전·지자체 합동점검팀 운영을 통해 재학대 발생 집중점검 하고 △재학대상황 발견 시 무관용원칙을 적용, 검찰고발 등 엄중조치 △학대 피해아동 분리조치 등 적극보호